

2018년 2월 25일 “나아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즐거운 사람”(합 3:16-19)

<도입>

삶의 끝자락에 이를수록 즐겁게 하고 더 나아지는 것들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삶의 여건과 건강과 성취 등, 얻었으면 잘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더 나아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불문하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입니다. 경외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1] 선지자의 현실

백성들은 생명의 길을 거둬 일탈했고 급기야 경고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1:2 “...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나이다” 말하며 겁탈과 폭력이 판을 치면 어떻게 율법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냐고 항의합니다. 그런데 죄는 인정/회개하지 않고, 상황만 나아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환경이 나아지면 주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영적 무지를 드러냅니다. .

5-11 절. 더 놀랄 일을 말씀하십니다. 가혹하신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극도의 긴장과 무서움 속에서 1:17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신다고 합니다. 2:2-4(읽음) 주님은 비록 더디어도 정한 때에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약속이 임하고 약속을 붙든 백성)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 길이 열리고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현재의 어떤 열악한 현실에서도 새롭게 열리는 차원을 말합니다.

3:16. 급기야 현실은 대대적 침략과 파괴로 말미암아 더 악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 안에 어둠과 무지가 사라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고백이 터졌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은혜의 임함으로 영혼을 열어 주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붙들 것이 없지만, 그를 붙들어주는 은혜의 열림에 붙들리는 새로운 현실이 열렸는데, 그 현실에서 그는 즐거움(새 힘)을 얻었습니다.

[2] 우리의 아젠다와 하나님의 아젠다

사람들에게는 삶의 필요 목록이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사람들은 안전이 아젠다 #1 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안전이 확보되면 그 다음은 개인적 욕구, 즉, 높은 생산성(보수), 유익한 친구 관계, 재물, 건강, 주식 등이 다음 아젠다가 됩니다.

이런 것들에 관하여 더 나아질 것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채워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영적 모양을 지닌 꾀입니다. 교묘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살펴보면 이러 현실적 아젠다는 모두 우리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더 나아지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젠다 1 번은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것은 알지만 항상 채워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옵션은 우리의 아젠다를 점검해야 하는데 어떻게 나의 아젠다를 수정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젠다는 **요삼 2**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젠다는 우리에게 항상 더 나은 삶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는 함께 하시려는 임마누엘(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젠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함께 함’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이 주님 약속의 성취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감격이 임합니다. Larry Crabb 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오는 축복은 (1) 하나님과의 실제적 만남, (2) 공동체의 진가를 경험, (3) 변화와 성숙, 즉 깨어짐과 회개라고 했습니다.

[3] 수정된 아젠다 = 우리의 진정한 필요

하박국은 자신의 아젠다를 수정했습니다. 3:2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 하나님의 참 명성에 해당하는 참 지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알고 나니까 1:17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항의했던 그가, 3:6 “...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 그의 행하심이 그러하시도다”로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러하셨는데, 자신의 안목과 판단에 빠져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던 것이 자기 무지였음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즐거운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을 더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세상의’ 높은 곳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뒤엎곤 했던 높은 풍랑과 파도가 칠 때 이제는 그것을 극복하는 새 길이 있음을 뜻합니다. 풍랑과 파도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방해하는 내가 세운 옛 아젠다였습니다. 즉 안전, 욕구, 두려움...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넘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한 길 깊이라도 감출 수 있으나 은혜는 열 길 깊이 내려도 뚫고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숨길 수 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자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찾는 삶 속에서 하박국이 누렸던 ‘그분 때문에 즐거운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누군가가 나의 인생의 필요목록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나누어 봅시다(영적이든 세속적이든 개의치 말고 말씀해 보십시오).
2.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3. 나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했던 것이 안팎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선 하박국은 나의 높은 곳을 사슴과 같이 다닐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희망적 그림이 내 삶에 그려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무엇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필요할까요?